

하루를 시작하며



김연
시인

‘생존’해야 하는 ‘인간다움’

어린 시절, 유독 깔끔한 성격의 어머니는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과자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 어머니는 불량한 식품이라는 정당한 이유로 나를 설득했지만 미각의 달콤함을 이미 알아버린 어린 꼬마에게 금기는 단지 욕망을 부추기고 이탈을 꿈꾸게 할 뿐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이탈은 작은 다락에 숨어 생라면에 스프를 뿌려먹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나마 생라면을 먹고, 만화책을 맘 편히 볼 수 있었던 작은 다락은 그 시절 나의 헤테로토피아였다.

성된 개념으로 ‘다른, 낯선, 혼종된’의 의미인 헤테로(heteros)와 ‘장소’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의 합성어이다. 미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에서 일종의 공상과도 같은 이상향의 세계인 유토피아와 ‘현실화된 유토피아’를 구분한다. ‘일종의 반공간’인 헤테로토피아는 관념 속 유토피아와 ‘실제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토피아와 다르다. 어린 시절 나에게 작은 다락이 헤테로토피아였듯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탈출’과 ‘해방’, 혹은 ‘망각’을 위한 장소를 찾는다. 그러나 그 시절 작은 다락이 쉽게 발각돼 더한 절망을 안겨주었던 과연 ‘현실화된 유토피아’는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그런 점에서 요즘 세계적인 흥행을 거둬 연일 다양한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다양한 사유를 야기한다. 돈을 쫓아 단순한 게임에 목숨을 거는 잔혹

하고 자극적인 드라마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열광한다는 것은 어찌지 쓸쓸하고 서글프다. 물론 흥행 이유는 자본주의의 민낯이 긴긴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경제적, 사회적 모순이 극대화된 시의성이 한 몫 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잔혹한 공간이 ‘일남’이 만든 헤테로토피아라는 것과, 그곳을 선택한 456명의 사람들 역시 삶의 전환을 간절히 꿈꾸며 일상에서 ‘탈주’한 이들이라는 것이다. ‘일남’의 헤테로토피아를 재현한 알록달록한 공간은 현실과 단절됐으나 더욱 치열한 현실 반복판이 되고 그 속에서 사랑과 배신, 복수와 연민, 연대의 변수가 뒤섞이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여과없이 드러난다. 결국 모두의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을 강하게 상기시키며 ‘탈주’의 한 계성과 권력관계의 속성을 날카롭게 일깨우는 역할을 맡는다.

세계가 들쭉이는 ‘오징어 게임’의 이슈화가 더욱 쓸쓸하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인간 본성은 경해져 있지 않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선택과 의지에 의해 변모의 가능성이 열렸기도 하다. 우리 현실이 ‘오징어 게임’보다 잔혹하다면 생존 목표는 ‘인간다움’에 있지 않을까. 미셸 푸코도 미안으로 남겨뒀듯 일상 속 헤테로토피아는 불가능한 것일 수 있다. 위대롭게 워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요즘, 마스크에 감춰진 표정과 긴긴 거리두기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인간답지 못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끝내 지켜야 할 마지막은 ‘인간다움’에 있을지 모른다. ‘생존’의 절박함으로 ‘인간다움’을 지켜낸다면 우리가 공존하는 ‘지금 여기’가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본다.

사설

유형주점 또 집단감염, 방심하면 안된다

제주지역 코로나19가 진정국면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천절 연휴기간 제주에서 유형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연휴기간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감염확산 우려가 높은 유형주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개천절 연휴기간(1~4일)에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수는 한자릿수(5~8명)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중이 찾는 유형주점, 교회 등에서 1~4일 동선이 공개된 유형시설은 모두 4곳이다. 제주도 역학조사 결과 지난 1일 동선이 공개된 유형시설 3곳 중 1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종사자 및 종사자와의 N차감염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8명이 감염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도내 유형시설 5곳

신변보호제 개선, 이번엔 제대로 작동돼야

제주경찰의 신변보호제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 여름 중학생 피살사건이 허술한 신변보호로 빚어졌다는 여론의 못매를 맞은 이후다. 경찰이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나섰다는 힐난을 피할순 없지만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도민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경찰의 신변보호제도 개선 의지는 평가받을 만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8월 신변보호체계 내실화방안 마련에 이어 9월부터는 가해자 위협성과 피해자 취약성 등을 종합 측정·관리하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전국 처음 도입했다. 이달 1일 제주청차장(경위관) 주제로 ‘신변보호 대상자 심사·분석회의’도 열여 모든 신변보호대상자 전수점검도 벌여 가해자 위협상황, 위협성, 경찰조치의 적정성 등을 집중 따졌다.

열린마당

수학여행 디자인 ‘트레블세프’ 서비스



오민우
서귀포시 국민정책디자인단

수학여행을 계획할 때 학교 현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절차를 거친다. 학생·학부모 수요 조사,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예산 검토, 안전 수칙에 알맞은 여행지 찾기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이다. 여러 사항을 고려하며 수학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여행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디자인했다. 지난 5월부터 약 10여 차례의 정책 수립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트레블세프’ 서비스는 서귀포시의 여러 여행지의 정보를 담은 ‘레시피북’을 제공해 학생들이 직접 수학여행을 계획해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여행 책자는 소규모 가족 단위의 여행 정보만을 제공했다면, ‘트레블세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레시피북’은 단체 수학여행 계획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뉴스-in

국민의힘 도당 대장동 특검 촉구 시위

6·8일 1인 피켓 시위 돌입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6일부터 8일까지 출퇴근 시간 도내 주요 거리에서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업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 피켓에는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와 관련해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으며, 제주도당 허향진 위원장 직무 대행과 부위원장단, 현역 도의원 등이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요 투어 장소를 방문해 직접 QR스캐닝 인증을 체험하고 주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이어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광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이윤형기자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진향재(서부경찰서 정보과) 아버지
풍기진공 영석(국기유공자, 향년 91세)
께서 서귀 2021년 10월 4일 21시 43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10월 6일(수요일)
▶ 발인일시: 2021년 10월 7일(목요일)
오전 8시 3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 장 지: 양지공원
부인 이춘옥
아들 진향재 며느리 최경희
딸 진향옥 며느리 한현미
정숙 사위 양석형
행자 김해홍
순자
향수
순화 윤평식
※ 연락처 : 진향재 010-2698-8977
진혁준 010-2747-3166
윤평식 010-2692-8211

토지 급매 가격
1) 월드컵경기장 아래 대로면 865평 ★최저가30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에접지구 부근, 12m계해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강정동 해안도로 40m 741평, ★평당 200만원★ 펜션 및 전원주택지
4) 강정동 해안도로 접 607평 ★360만원★ 카페 최고부
5) 강정동 해안도로 100m 753평, ★평당 73만원★ 전원주택지, 투자용 최고
6) 강정동 해안도로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호근동 법성 부, 최고 전원주택 360평, ★평당 200만원★ 건축 바로 가능
010-2102-5424 / 010-6275-520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獎學生 選拔公告
재단법인 광산김씨제주특별자치도장학 문화재단 정관 제4호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2조에 의하여 2021학년도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1. 11. 01 ~ 2021. 11. 30 까지
□ 신청 대상자 광산김씨 제주도 출신 중·고등학교 4년제 대학 및 4년제 학과 재학생 중 생활이 곤란한 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1학기 성적 3.0이하인 자 및 현재 4학년은 제외함)
□ 제출서류 1. 신청서(본재단 소정양식)1통 2. 사진(소정양식)2매 3. 가족관계증명서1통 4. 주민등록등본1통 5. 2021학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3.0 이상)1통 6.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1통 7. 해당 학교 또는 다 기한 장학금수혜 확인서1통 8. 자기소개서(본재단 소정양식)1통 9. 부모님의 세력별 과세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2통 10. 본인통장사본1통 (부모님 세력별 과세증명서는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 명의의 납세 증명서 각 1통씩 총 2통이며, 비과세인 경우는 비과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재산세 부도상환 70만원미만
□ 접수 및 문의처 http://jejukwangsan.com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신청바랍니다. 주소 : 제주시 노연로 125(연동 293-14) (재)광산김씨제주특별자치도장학문화재단 전화 : 사 무 실 743-7500 상임이사 김성배 010-3699-0045 위와 같이 공고함. 2021년 10월 일 財團法人 光山金氏濟州特別自治道獎學文化財團 理事長 金 洙 榮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노지감골
○ 극조생감골 수확 및 출하
- 품질 기준 준수: 당도 8°Bx, 착색비율 50% 이상
- 수확 전 부패방지 약제 살포 및 예초 처리 후 출하
○ 마무리 열매숙기: 착과량이 많은 나무 위주 극대과, 극소과, 중결점과
○ 감출제 살포: 부피 경감 및 착색 촉진
○ 토양피복 노지감골
- 빗물 유입 시 반드시 피복재를 걷어 토양을 건조시킨 후 재 피복
- 10~15일 간격으로 정기적 품질조사를 통하여 적정 수분관리
양 파
○ 적기 파종 및 정식
계통별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성숙하기
조생종 8월 하-9월 상 10월 중-10월 하 4월 상-중 4월 상-중
중생종 9월 상-9월 중 10월 하 5월 중-하 5월 중-하
만생종 9월 상-9월 중 11월 상-11월 중 6월 상-하 6월 상-중
○ 노지목욕
- 종자 소요량 6~8d(3~4홉)/10a / 육묘기간: 45~55일
- 묘상면적: 정식면적 10a당 40~50m(12~15평)
- 파종 후 토습이나 55% 차광망을 피복 후 충분히 관수
○ 플로그육묘
- 종자 소요량 4d(2홉)/10a / 육묘기간: 조성 30~35일, 종만 생 40일
- 406공 파종상자에 파종 후 물을 충분히 주고 차광망 등을 덮어 관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성과(760-7531-2)